

본문 : 시편 42 편 1-11 절

제목 : 후렴구가 있으세요

1. 고라자손의 노래

요즘 흐린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서쪽 해안가에서 살 때는 비가 안 오고 해만 뽀뽀한 날이 계속되는 게 아쉬웠는데 구름 끼는 날이 많은 중서부에 오니 해가 뽀뽀한 날이 반갑기만 합니다. 그래도 흐린 날과 비오는 날, 추운 날과 눈 오는 날이 시절을 따라 반복되는 중서부가 좀 더 인간적인 듯 합니다. 왜냐면 우리 인생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흐린 날, 궂은 날, 바람 부는 날이 언제든 쉬지 않고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시편은 총 5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2 권은 42 편부터 72 편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의 두 번째 책의 첫 시편입니다. 시편의 2 권의 시들에는 대부분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42 편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마스길, 고라 자손의 노래> 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마스길은 노래의 형태를 가리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의 일족인데, 성전 예배를 지도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직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를 보면 이 시인의 인생이 녹록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듯 합니다. 그에게 갑자기 닥쳐온 환란을 어떤 식으로 헤쳐 가는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도 힌트를 얻어보려 합니다.

2. 목마른 사슴

1 절을 보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혈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혈떡입니다." 요즘이 사슴의 짹짹기 시절이기도 하고 헌팅 시즌이기도 해서 사슴들이 미쳐 날 뛰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사슴이 자기 서식지를 벗어나 인간들이 사는 영역에까지 침범해 들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목 마른 사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갑작스레 자동차를 향해 뛰어드나 봅니다. 그 뛰어드는 순간이 너무나 순식간이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사슴을 쳐 본 경험자로서 사슴들은 무엇이 그리도 갈급하고 다급한 것이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목마른 겁니다. 이스라엘 성지 답사를 갔을 때, 사해 근처에 엔게디라는 곳을 방문한 적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광야가 바로 그곳입니다. 마침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정말 풀 한 포기 없어 보이는 광야에서 사슴이 풀을 찾는 것인지 물을 찾는 것인지 헤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엔게디의 엔은 샘을 뜻하는 말이고 게디는 새끼 염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해 근처의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엔게디였고 사슴들이 그 샘의 근원을 찾아 헤매곤 합니다. 사슴이 험퍽거리며 샘을 찾는 모습을 통해 시인은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인가요? 그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사슴을 메타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를 표현하고자 할 때, 당시 사람들은 목마른 사슴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3. 생수의 근원되신 하나님

시인이 그렇게 갈급하게 찾는 마르지 않는 샘은 바로 생수의 근원되신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2 장 13 절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죄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둘째 죄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다른 샘을 팠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좇아 갔다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시의 저자로 소개된 고라 자손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길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6 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북쪽 변방에 있는 헤르몬 산 쪽에 유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 예배를 지도하던 사람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유배지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며 이 시를 쓴 것입니다. 2 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성전 예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4 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큰 명절, 지난 주 말씀드렸던 삼대 명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예배하던 때를 기억한 것입니다. 성전을 방문한 순례객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며 그 장막으로 들어가던 일을 생각하며 그의 가슴이 미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항상 갈 수 있을 때는 그것이 소중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갈 수 없는 현실에서 너무나 그리운 것입니다. 서울 사람들 중에 한강 유람선 안 타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늘 보는 것이고 언제든 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오히려 서울의 곳곳을 더 많이 누려봅니다. 저도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오래 오래 있을 줄 알고, 장가계며 계림이며, 윤동주 시인의 생가며, 가보고 싶은 곳들을 여행하는 것을 미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방당하고 갈 수가

없으니 아쉬운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 오자마자 기회가 있을 때 여러 곳을 방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인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와서 그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고 그의 삶에 물근원이 되는 곳이었는지 깨달았던 겁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생수는 바로 성전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생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큼 그의 삶에 달달한 생명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 너무나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추방 당하여 오랫동안 은혜를 받지 못한 고라 자손은 유배지에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습니다. 왜냐면 그를 비난하고 비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4. 눈물이 음식이 되어...

그의 대적자들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를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꼭 한 두 명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 풀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 주신다며, 근데 넌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로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다스리는 가장 큰 전략은 ‘Divide and rule’ 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나뉘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전략입니다. 시인의 주변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갈라 놓게 하기 위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림과 조롱 때문에 시인은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의 근원이죠. 그런데 마음이 너무 힘들면 음식도 먹기 싫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음식 대신에 우리에게 눈물을 주십니다. 눈물이 음식이 되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죠. 눈물은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설 힘을 주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 계시죠. 저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슬프면 많이 울어야 합니다. 왜냐면 눈물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슬프면 우십시오. 눈물을 에너지 삼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저도 호르몬의 변화 때문인지 유행가 가사만 들어도 눈물이 자꾸 흐릅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나면 뭔가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소설책이나 시를 읽으면서도 자꾸 눈물이 납니다. 아무래도 갱년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 시의 고라자손의 눈물과는 다른 의미의 눈물일 수 있지만, 눈물이 우리 삶에 에너지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큰 슬픔 가운데 홀로 눈물 짓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 주는 에너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5. 인생의 후렴구가 있나요?

시인은 이런 슬픔의 노래 한 가운데, 그의 삶을 지탱해 오던 후렴구를 삽입합니다. 후렴구라는 것이 무엇가요? 노래의 끝부분에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음악작품에서 슬픔을 노래하거나 연주하다가도 주제가 되는 테마를 후렴으로 반복하여 기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슬픔과 기쁨, 낙망과 희망을 번갈아가면서 표현하는 것이죠. 시편 42 편의 후렴구는 5 절과 11 절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시의 주제가 이 후렴구에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속 사람아 그런 뜻입니다.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은밀한 나의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이 내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요즘 노래로 바꾸자면, “왜 그렇게 다운 돼 있어?”일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 다시 찬양하련다.” 현실은 단조(minor key)의 매우 우울한 상황이지만, 일부러 장조(major key)의 후렴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낙심되고 절망속으로 빠져 들 때마다 이런 후렴구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암송해 오신 성경 암송구절이 될 수도 있고, 좋아하시는 찬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낙심되고 불안할 때는 시편을 그냥 반복하여 큰 소리로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시편의 노래들은 대부분 우울하고 힘들고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 지어진 노래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분위기를 바꿔 줄 수 있는 이런 후렴구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다시 멀어졌던 하나님의 임재로 연결시켜 줄 영적인 습관이나 시도들을 말합니다. 주일 예배,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저녁 성찰기도, 선행, 일기 쓰면 기도하기 등등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후렴구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렴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격려해도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절의 후렴구 이후에 시인은 다시 절망적인 현실을 고백합니다. 그는 9 절의 말씀처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현실은 변한게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것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삶은 월미도 앞 유원지의 디스코 팡팡처럼 매우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고백이죠. 나는 흔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의 든든한 설

땅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시 한 번 더 후렴구를 통해 자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 다시 찬양하련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삶을 다시 한 번 하나님을 향해 살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6. 일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고라 자손은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어 북쪽의 헤르몬 산 근처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이유로 그곳에서 생활하는 지 밝혀지진 않았죠. 하지만 시의 분위기를 봤을 때, 그가 원하지 않은 곳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까이에 있었던 성전과 그 안에서 맛 보았던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내가 현재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삶이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것임을 깨달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생수의 맛이 그의 팍팍한 삶 가운데 희망을 한 모금 선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맛 보았던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다시 느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샘을 찾아 헤맸던 그의 삶을 돌아킵니다. 다른 우상들을 통해 위로를 얻으려고 했던 그의 삶을 반성하며 생수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다시 찾고 찾는 것이죠. 그는 반석이신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기 위해 주문과도 같은 그의 삶의 후렴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후렴구는 그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그를 하나님께 찰싹 달라 붙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는 흔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임을 후렴구를 통해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7. 씨앗이 되어

시인이 6 절 말씀에 특별한 지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의 변방에 위치한 곳들입니다. 그는 변방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런 지명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것이지요. 베드로 전서 1 장 1 절에 보면 베드로가 편지의 서문을 열며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도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면서 흠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흠어져 사는 이란 헬라말이 ‘Diaspora’입니다. 씨를 흠뿌린다는 뜻이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씨를 뿌리듯 세상 곳곳에 뿌려진 나그네들이란 의미이죠.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흠뿌려진 하나님의 씨앗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으로 흠뿌려진 겁니다. 1994년 경에 멕시코에서 사파티스타 운동이 있었습니다. 멕시코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살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일으킨 무폭력의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은 땅을 일구는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구호를 들고 저항했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으며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They tried to bury us. They didn’t know we were seeds.” “그들은 우리를 땅에 묻으려 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씨앗이라는 것을 몰랐네~” 씨앗은 땅에 묻히면 어떻게든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디아스포라이자 나그네로 이곳에 두신 것은 우리로 씨앗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향을 떠난 이들은 취약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김준태 시인의 <고향>이란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향에선/ 눈 감고 뛰오도/ 자빠지거나 넘어질 땐/ 흠과 풀이 안아준다.” 고향은 우리가 기대고 비빌 대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그네 삶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취약합니다. 미국 같이 경쟁이 심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하는 그런 곳에 떨어진 씨앗들은 더 각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G2 국가인 중국과 미국에서 살아 본 결과 미국 삶이 훨씬 힘들고 팍팍한 것 같습니다. 척박한 곳에 뿌려진 씨앗이기에 목마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샘 근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생수의 근원되신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삶이 자꾸 흔들리고 불안할 때 반복하여 부를 후렴구가 있어야 합니다. 옛날 엄마들은 갓난 아기를 포대에 업고 다니셨죠. 애를 업은 포대기가 자꾸 허리 아래로 쳐지면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한 번 튕겨서 아기를 허리 위로 추켜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죠. 이게 후렴구의 역할이라 봅니다. 우리 삶이 늘 평탄할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고 항상 존재합니다. 직장은 기본적으로 내 힘을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다운될 때, 우리를 추켜 세워줄 후렴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후렴구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씨앗으로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흔들리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흔들림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단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붙드신다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씨앗을 꽃피우고 열매맺게 될 것입니다. 부디 생수의 근원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든든하게 서길 바라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나눔>

1. 지난 달 나눔에서 실천해 보고자 했던 것을 실천해 보고 느낀 점들을 나눠봅니다.
2. 최근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있나요?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눠봅니다.
3.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후렴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거나 반복해야 할 후렴구가 되는 경구나 습관이나 실천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다음 만남까지 실천해 봅니다.